



추사 김정희의 제주 일상생활 연구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제주도에서의 일상생활
- III. 결론

추사 김정희의 제주 일상생활 연구

양 진 건
제주대학교 교수

I. 서론

추사의 제주도에서의 일상생활은 현종 임금과 제자 허련과의 대화에서 짐작할 수 있다. 현종 임금이 먼저 추사의 귀양살이에 대해 물었다. 이에 허련은 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전한다.

“김추사의 귀양살이는 어떠하던가?” 하시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소신이 목격했사오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의 벽에는 도배 하지 않은 방에 북창을 향해 꿇어 앉아 정(丁)자 모양으로 좌장에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밤낮 마음 놓고 편히 자지도 못하며 밤에도 늘 등잔불을 끄지 않습니다. 숨이

경각에 달려 얼마 보전하지 못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¹

숨이 경각에 달려 얼마 보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허련의 말은 과장이 다. 실인즉 제주도에서 힘들게 지내기는 했지만 추사는 장수를 하였다. 허련의 과장에는 스승을 어떻게든 제주도에서 구해내 보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계속하여 현종 임금은 추사의 먹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먹는 것은 어떠한가?”, “생선 등숙이 없지 않사오나 비린내가 위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혹 멀리 본가에서 반찬을 보내옵조만 모두 너무 짜서 오래 두고 비위 맞출 수는 없습니다.”²

허련의 대답처럼 추사는 바다 고기의 비린내를 싫어하여 여러 가지 반찬을 부인이 따로 보내주면 먹었다. 추사의 하루를 물어오자 아이들을 가르치며 적막한 유배생활을 견뎌내는 모습을 전한다.

“무엇을 하며 날을 보내는가?”, “마을 아이들이 서넛 와서 배우므로 글씨도 가르쳐 줍니다. 만일 이런 것도 없으면 너무 적막하여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³

1. 『小癡實錄』, “問曰金秋史居停凡如何耶曰此小臣之目擊敢不詳陳圍籬之內壁無塗長跪向北以丁爨小木支軀晝夜寐從以夜不滅燈奄奄氣息似可朝難保矣”

2. 『小癡實錄』, “且曰所食何如耶對曰魚鮓之類不無矣厭腥敗胃或家來皆太鹹不能久供安胃矣”

3. 『小癡實錄』, “問曰金秋史居停凡如何耶曰此小臣之目擊敢不詳陳圍籬之內壁無塗長跪向北以丁爨小木支軀晝夜寐從以夜不滅燈奄奄氣息似可朝難保矣且曰所食何如耶對曰魚鮓之類不無矣厭腥敗胃或家來皆太鹹不能久供安胃矣且曰遣日維何對曰村童數輩來學或教以書教以字無此太寂不也 且問曰濟州風土民物何如耶對曰山野草木人物居室耕鑿是異域苦非 聖化攸及難治哉”

마을 아이들이 서넛 와서 배운다는 말도 역시 과장이다. 비록 제주도 귀양살이 신세였지만 배움을 위해 추사를 찾아온 사람은 육지에서는 물론 제주도 내에서도 많았다. 적막한 귀양살이를 강조하기 위한 대답 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추사의 제주도에서의 일상생활의 면모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밝힘으로써 추사의 유배생활은 물론 조선조 유배인들의 생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유배라는 것이 비록 참담한 격리 장치이기는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매우 여유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함께 함을 알 수 있어 유배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Ⅱ 제주도에서의 일상생활

1. 잦은 질병

제주도에서 추사는 잦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추사는 “눈병·다리 병이 한결같은 데다 또 소화불량증까지 더하니 백 천 가지가 맵고 쓰곤 하여 갈수록 더욱 견뎌낼 수 없다오.”⁴라며 눈병, 다리의 병, 소화불량증 등을 호소했다. 환갑에 가까운 몸으로 제주도에서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기침과 혈담으로 고생을 했고 특히 눈

4. 『阮堂先生全集』, 卷四, 與張兵使, 其九, “累狀 苦無勝相 眼疾脚疾一如 又添阻胃 百辛千夢 去益無以抵得耳 適因李君之去 有此暫申 李是此行入海初 初遇之人 而于今九年 凡百巨鎖 皆與之關涉 窮途之一善緣”

의 아픔을 호소했다.

가래 기침이 크게 더쳐서 그 기침이 급하여 기가 통하지 않을 때는
혈담까지 아울러 나오는데, 이는 모두 장습이 빌미가 된 것이네. 게
다가 수전도 좋지 않아 답답한 기운이 뱃속에 가득 차서 풀리지 않
고, 눈이 어른어른한 증세도 더하기만 하고 줄지는 않네.⁵

특히 눈이 자주 아팠던 관계로 “근래에는 안질이 더욱 심해짐으로
인하여 도저히 붓대를 잡고 글씨를 쓸 수가 없다”⁶고 했다. 이런 이유
로 추사는 직접 「안질조치대법(眼疾調治大法)」을 남겼다. 안질의 증상
과 원인, 치료법 등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한 글이다. 얼마나 눈이 불
편했으면 이런 치료법을 본인이 직접 썼을 것인지 짐작이 간다.

그 세부목록을 보면 안병소인(眼病所因), 안병무한(眼病無寒), 안무
화불병(眼無火不病), 내장(內障), 가미사물탕(加味四物湯), 자신명목탕
(滋腎明目湯), 충화양위탕(沖和養胃湯), 양간원(羊肝元), 정전양간원(正
傳羊肝元), 속방(俗方), 석결명과법(石決明裹法)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석결명과법(石決明裹法)은 제주도와 관련이 깊다. 석결명
이란 전복을 말하며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다. “전복 살은 맛이 짜고 성
질은 서늘한데 눈을 썩 잘 밝게 하고 껍질로는 예막을 삭힌다.”⁷고 하였

5. 『阮堂先生全集』, 卷二, 與舍季, 其五, “吾狀一如前邈樣 而痰嗽大爲添劇 其嗽急氣不旋之時 血症并發 無非瘴
濕爲祟 水泉不佳 積滯痞滿不散 眼花有加無減 春瘴又早作 不能耐瘴 較益甚焉 恐無以支吾矣”

6. 『阮堂先生全集』, 卷二, 與舍季, 其七, “近因眼花轉欲 萬無由執筆臨池 王靈攸暨 費得十五六日工力 屢得寫
就扁三卷三 而餘外二卷 以若花翳 萬萬無續寫之道 未免還爲呈納 據棠陳白 於吳君書中 極知萬萬悚凜 而不可
以強所不可強 亦以此狀 另及於吳圭一爲好”

7. 黃度淵, 『方藥合編』, 石決明肉鹹涼劑最能明目裁消

다. 예막이란 눈에 끼는 백태를 말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전복 껍질을 밀가루 반죽에 싸서 잿불에 묻어 구워 익혀 쓰거나, 소금물에 삶아서 보드랍게 가루 내어 쓴다고 했다.

추사는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심지어 며느리에게조차 “나는 구창으로 오리 신고하니 민망하다 겨우 그런다”⁸고 호소할 정도였다. 과로를 했을 때 입안이 헤어지고 혀바늘이 돋기도 하고 입술 주위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창이다. 그런가하면 담체로도 고생했다. 추사를 많이 도와주었던 제주목사 장인식에게 이를 호소했다.

누인의 병은 그 사이에 또 담체가 더치어 수십 일 동안을 크게 앓고도 상기 위가 막혀 먹지를 못할뿐더러 신기가 전혀 수습되지 않으니 답답하외다.⁹

피풍도 심했다. 피풍이란 피부에 발진 없이 심한 가려움증이 있는 이른바 피부소양증이다. 추사는 노인성 피부소양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 피풍으로 가려움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나는 아직 흔 모양이오나 피풍으로 소양이 지금까지 낫지 못하여 밤을 킁양 새와 나오니, 갖득 변변치 아니흔 잠을 더고나 못 자고 실

8.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343.

9. 『阮堂先生全集』, 卷四, 與張兵使, 其十五, “累病 間又痰滯添頓 十數日大疼 尙此阻胃不喫 神氣全不收拾 悶然”

노 어렵스오나 식음법칙은 별노 못흐지 아니흐오니 견디여 가옵¹⁰

2. 잣은 질병에 대한 대비

1) 상비약

이렇게 아프다보니 당연히 상비약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추사는 부인에게 건위제로 이용되는 계피와 진해, 이노 및 강장제로 애용되는 천문동을 보내달라고 하고 수수엿도 요구했다. 그런데 요청한 것 가운데 꿀껍질도 있다.

수수엿슬 고아 보내게 흐되 너홀 약지를 어더 흐되 너허 고오개
흐옵. 빅합 이랑 계피 삼전, 천문동 이랑 꿀피 삼전을 서울 구하야
오옵. 길경 일랑 우세말 당일두 조화 재오¹¹

백자 즉 잣과 호두, 그리고 꽃감 등을 보내달라고 했다. 잣, 호두 등의 견과류는 건강식품이자 중요한 기호식품이었기 때문에 꽃감과 함께 추사가 제주도에서 즐겼다. 평소 잘 먹고 잘 살던 추사의 입버릇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빅자와 호도가 여기는 업는 거시오니 어더 보내게 흐옵고, 죠흔

10. 金一棍,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302.

11. 金一棍,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304.

곳감이 거괴셔는 엇기 어렵지 아니호을 듯호오니 빅편의 스오접 어
더 보내야 주옵. 회쇼의는 막양 구급이 되기 이리 기별호오며…부치
개 호옵.¹²

2) 인삼의 장복

추사가 특히 장복했던 것은 인삼이었다. 어느 정도인가하면 “다만
인삼을 배추나 무 씹듯이 할 뿐이오.”¹³라고 했다. 그러가하면 “옛날의
인삼을 두 사발씩이나 마시며”¹⁴라고도 했으니 그 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옛 낭종의 인삼을 시험 삼아 복용한 것이 이미 오륙근이 넘었
답니다. 지금까지 버려온 것도 또한 그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8신¹⁵

추사에게 이런 인삼의 힘을 제공해준 사람은 식구 외에 친구 권돈인
이 있었다. 실낱같은 목숨을 연장시켜준 그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이 애
절하다.

보내주신 인삼에 대해서는 주는 대로 사양치 않고 받아서 마치 나

12.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p.294~295.

13. 『阮堂先生全集』, 卷五, 與草衣, 其十三, “此中 頑恙一味作苦 但喫三種如菘蕪而已

14. 『阮堂先生全集』, 卷四, 與張兵使, 其十六, “六兩蔘二椀 尙待人而臥起”

15. 『瀛海朵雲帖』, 第八信, “賤今己五十日 如止水之不進 日試六兩重蔘 己爲五六斤之多 至今支柱而來者 亦其力耶”

에게 본디 있는 것처럼 복용하고 있으니 이 어떤 공덕입니까? 만일 지난번에 주신 것으로 바짝 마른 창자를 적셔주지 않았더라면 이 실낱 같은 완둔한 목숨을 지금까지 연장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것이 떨어졌는데, 또 계속하여 대주시는 성대한 은덕으로 끊임없이 감로수를 정수리에 부어주심을 입으니, 우리러 감사할 뿐입니다¹⁶

권돈인은 인삼 외에도 담배도 보내주었는데 담배를 풍토병인 습하고 더운 땅에서 나온 독기를 막는 약재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인삼과 연초를 연해서 많이 내려주시므로 우리러 높으신 비호에 의탁하여 인삼은 먹어서 원기를 보충하고 연초는 피워서 장기를 막게 되었으니, 더없이 머리 들어 사례하는 바입니다.¹⁷

친구인 권돈인 외에도 제주목사 장인식도 가까이서 추사에게 인삼을 제공해 준 인물이었다. 추사가 귀양살이하는 동안 제주목사가 여섯 명이나 갈렸는데 장인식은 이 가운데 마지막 목사로서 추사에게 인삼을 제공하는 등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약과 인삼을 아울러 염려해주시니 어찌 천만 번 감사하지 않으리까. 안질이 근자에 더하여 간신히 적으니 글자가 되지 않는구려. 나머지는

16. 『阮堂先生全集』, 卷三, 與權彝齋, 其十五, “下送靈稭 有願不辭 若固有之 是何功德 如非前貺之沾槁潤乾 無以延此一縷之頑”

17. 『阮堂先生全集』, 卷三, 與權彝齋, 其六, “况三稭鼻烟 連蒙便蕃之貺 仰託崇庇 服之以補元 嗅之以樂瘳 到底翹謝”

뒤로 미루고 갖추지 못하외다.¹⁸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사는 인삼을 복용하면서 병치레를 견디어 낸다.

현재의 병은 지금 오십 일이 되어 가는데 날로 옛 냥의 인삼을 두 사 발씩이나 마시며 오히려 부축을 받아서 놓고 일어나곤 하고 삶은 밥도 꽤히 씹지를 못하는 형편이니 이올어지는 별은 돌아오기 쉽지 않음이 마침내 이러한 것인지요.¹⁹

『해린척소』의 1845년 1월로 추정되는 장요손의 편지에도 “김정희가 먹은 인삼에 대해 자세히 알려 달라”는 내용이 있던 점으로 미루어 조선 인삼의 가치와 추사의 인삼을 이용한 건강관리는 청나라까지 입소문을 탔던 것이다.

3) 단전호흡

그리고 허련이 그린 초상화 「해천일립상」을 보면 추사는 왼손으로 수염을 어루만지고 오른손으로는 배꼽 근처를 움켜쥐고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연단도인의 몸짓이라고 하는데 단전호흡으로 건강을 관리하

18. 『阮堂先生全集』, 卷四, 與張兵使, 其五, “藥糧之並及 到底念注 安得不篆感萬千 餘眼花比添 艱草不成字 姑不備狀”

19. 『阮堂先生全集』, 卷四, 與張兵使, 其十六, “見病今將五十日” 而日喫六兩蔘二椀 尙待人而臥起 不能夫嚼煮飯 頽景之不易回 乃如是耶”

는 증거라는 것이다.

사실 추사가 호소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생사여탈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병이기 보다는 잔병들이다. 이런 잔병 치레를 하면서도 추사가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삼이나 단전 훈련의 덕이 컸을 것이다.

추사가 인삼 장복이나 단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을 것이라 짐작되는 이유는 아버지를 제외한 저의 모든 식구들이 단명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물론이고 추사 역시 건강관리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을 것이며 그 덕에 부자가 장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단전에 대한 추사의 지식이 매우 해박하다. 여기서도 특유의 박학 정신과 함께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양생가들이 심신과 신신으로써 비(脾)의 곳에 어울리게 하는데 그곳을 황정이라 일러 약간은 배꼽과 더불어 서로 마주하며 황정 아래에 관이 있어 대략은 위장의 교관과 더불어 서로 마주한다. 여간의 칠문에 이 문이 가장 중요하여 숨을 내쉬면 관이 열려 심기가 신과 통하고 들이쉬면 관이 닫기어 신기는 심에 달한다. 이곳이 개합과 호흡이 골라지면 온 몸의 관절이 조화되지 않는 곳이 없다. 관 아래 단전이 있어 이를 정해라 이르는데 신선가들이 흔히 심·신으로써 어울리게 한다.²⁰

20. 『阮堂先生全集』, 卷七, 書示金君爽準, “大抵人身 鼻受天氣 自嚙喉而降 下通前陰 共有七門 … 日受水穀 自嚙喉而降 下通後陰 … 養生家 以心神賢神交於脾地 其地謂之黃庭 略與臍相對 黃庭下有關 略與胃腸之交關 相對 虛問七門 此門最要 呼則關開而心氣通於腎 噓則關閉而腎氣達於心 此處開關呼噓調 而通身關節 無有不調 矣 關下有丹田 是謂精海 神仙家多以心腎交”

3. 다도생활

추사가 장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삼과 단전훈련 외에도 차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추사는 제주도에서 설사병을 차로 고치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 차 덕에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다고도 했다.

미친한 사람은 그 사이 갑작스런 설사병에 걸려 몸의 기운이 몽땅 탈진되었으니 세상살이의 고통이 마침내 이런 것인가 하오. 다행히 차의 힘으로 말미암아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으니²¹

추사의 차에 대한 높은 안목은 용방강과 완원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북경에 갔을 때 완원의 서재인 쌍비관에서 승설차를 맛본 후 차에 매료되어 자신의 호를 승설도인(勝雪道人)이라 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축적된 추사의 차에 대한 식견과 경지는 후일 다성(茶聖)이라고 불리게 되는 초의의 제다법을 완성하는데 실제적인 조언을 가능케 하였다.

사실 초의는 추사와의 교류를 통해 청나라 문물에 대한 안목을 확장할 수 있었고 신학문인 고증학이나 실학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학과 경화사족과 교류를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차의 애호층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초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추사였던 것이다.

21. 『阮堂先生全集』, 卷五, 與草衣, 其三十七, “賤間經藥寫 眞元放下 世趣之苦 乃如是耶 幸因茗力 得延煖觸”

추사는 말차를 끓이는데도 일가견이 있었다. 당나라 육우의 다경을 보고 끓는 물에 말차를 넣어 휘저은 다유를 흰 꽃에 비유하였고, 손수 끓인 뇌협차를 초의와 함께 마셨다. 추사는 완당 외에 다로(茶老), 고정실주인(古鼎室主人), 승설차의 이름을 본딴 승설도인 등 차와 관련한 아호를 많이 가졌었다.

추사는 차를 구하기 어려운 귀양살이 동안에도 손수 덕은 차를 보내 준 초의 덕에 차를 즐길 수 있었다. 초의에게 해마다 차를 얻어 마셨지만 그림에도 추사의 갈증은 대단했다.

원래 서신은 역시 차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차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스님도 아는 바입니다. 스님이 스스로 법제한 차는 당연히 연례로 하는 일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절에서 만든 소단을 3, 40편쯤 조금 좋은 것을 가려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²²

추사가 대흥사 사중에서 만든 단차 중에서 품질이 좋은 소단차 30, 40편을 골라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대흥사에서 소단차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차(團茶)란 차의 가루를 뭉쳐 만든 덩이차를 말하는데 다산 정약용도 여린 찻잎으로는 잎차를 만들고 늦게 딴 찻잎으로는 단차를 만들었다고 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녹차 재배단지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역사는 오래

22. 『瀛海朵雲帖』, 第六信, “原書亦以茶懇矣 此中茶事 甚艱 師所知耳 師之自製法茶 當有年例 不必更言 寺中所造小團三四十斤 稍揀其佳 惠及切企”

되지 않았다. “이곳은 차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추사의 지적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차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제주도의 차 문화는 추사와 초의 덕분에 소개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조선후기 유배인 김윤식 이 유배인들과 제주도 지식인들과 조직했던 ‘굴림’이라는 시회(詩會) 활동 등에서 제주도의 차문화가 본격적으로 성숙되기는 했지만 당대의 척박한 제주도의 환경 탓에 여전히 한정된 몇 사람만이 향유하는 고급문화일 수밖에 없었다. 차에 대한 추사의 탐닉은 편지 곳곳에 숨김없이 드러난다.

새 차는 어찌하여 들샘, 솔바람 사이에서 혼자만 마시며 도무지 먼 사람 생각은 아니하는 건가. 삼십대의 봉(棒)을 아프게 맞아야 하겠
구료.²³

추사의 차에 대한 재촉은 “30대의 봉을 아프게 맞아야 하겠구료.”라는 구절에서 보듯 매우 익살스럽다. 추사가 초의가 차품을 완성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초의를 희롱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친교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차에 대한 갈증임과 동시에 농담을 건네받을 수 있는 우정의 과시였다. 그런데 추사는 하필 왜 이런 농담을 했을까?

알다시피 추사는 안동김씨 측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6차례에 걸친 혹

23. 『阮堂先生全集』, 卷五, 與草衣, 其三十二, “六茶可以霑此渴肺 但太暑 又與熏衲曾有茶約丁寧 不以一搶一旂相及 可歎 須轉致此意 搜其茶篋 以送於春襪(?) 爲好爲好 艱草便忙 不式 新茶何以獨喫於石泉松風之間 了不作遠想耶 可以痛棒三十矣”

독한 고문을 당하고 36대의 곤장을 맞고는 망신창이 몸으로 죽음 직전에 제주도에 유배를 온 사람이다. 혹시 36대의 곤장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친구에게 30대의 봉을 농담으로 건네 본 것이 아닐까? 어쨌든 그것은 우정의 농담이었다. 이렇게 차를 매개로 그들의 우정은 익어갔다.

나는 스님이 보고 싶지도 않고 또한 스님의 편지도 보고 싶지 않으나 다만 차와의 인연만은 끊어버리지 못하고 쉽사리 부수어 버리지도 못하여 또 차를 재촉하니 편지도 필요 없고 다만 두 해의 쌓인 빚을 한꺼번에 청겨 보내되 다시는 지체하거나 빚나감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거요.²⁴

이런 깊은 우정이기에 차를 받고 답으로 「일로향실」과 같은 걸작의 편액글씨를 써줄 수 있었다.

4. 한글편지쓰기

추사는 누구보다도 많은 편지를 썼다. 마치 편지를 쓰기 위해 일생을 보냈다고 할 만큼 많이 썼다. 특이한 것은 그가 당대 최고의 한문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편지를 썼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추사의 한글편지는 34통이 발굴, 정리되었으며 그 중 15통은 제주도에서 써진

24. 『阮堂先生全集』, 卷五, 與草衣, 其三十四, “吾則不欲見師 亦不欲見師書 唯於茶緣 不忍斷除 不能破壞 又此促茶進不必書 只以兩年積逋 並輸 無更遲悞可也”

것이다.

아버지의 제삿날을 유배지에서 맞는 비통한 심회가 적나라하게 표백되어 있는 편지가 우선 눈길을 끈다. 제사에 참례하지 못한 원통함이 하늘과 땅에 사무치고, 너무나 억울하여 죽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 처지를 두고 “나는 샤라잇다 흐을 길이 업다”고 하여 그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지난 달 회일 제사 지나오시니 철천철지흐 망극지통 더욱 원통은 박햐야 죽지의 죽어 모르고 시브오니. 고금천하의 샤름의 정니 광경이 어티 잇스을잇가.(중략) 나는 샤라잇다 흐을 길이 업습.²⁵

비단 아버지만이 아니라 양부의 제사에도 참례하지 못하여서 원통함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여름철에 제사 음식 장만하는 일에 대해 걱정을 표시하고 있다.

초싱의 년흐와 싱신날과 제스 지내오시니 외오셔 망극지통 더욱 원박흐옵고 제스는 엇지나 햐야 지네와습. 잇쩍의 향듬은 더욱 제품이 무론 어육 과품흐고 다 어려울 듯흐오니, 그런 싱각을 흐을수록 더욱 죄롭기 측냥햐야 이를 길이 업습.²⁶

종손으로서 추사는 후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추사는 적

25.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91.

26.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95.

자가 없어 제주도에 유배된 다음 해에 12촌 태희의 아들 상무(商懋)를 입양하였다. 이를 기뻐하는 편지도 보인다.

양자를 들이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조상이 도우신 것이며 하늘이 힘쓴 덕택이라 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양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섭섭하다고 하면서도 기꺼워하는 모습이 선하다. 기뻐하는 모습에서 추사의 부인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후사에 대한 추사의 그 동안의 걱정을 짐작할 수 있다.

아들을 완정호와 종도 의탁이 되옵고, 우리가 근눅십의 부모 말을 드르니 문호의 이런 경스 어디 잇습. 아직 보지 못햐야스오나 보나 답지 아니햐게 듯줍고, 이리 궁박히 된 썸 이런 대스가 순성햐옵고, 일 무비도선이 음우햐오시고 천십이 회화햐오시는 일갓스와, 더욱 일변 견 햐고 일변 궁구햐와 혼가지로 안즈 잇지 못햐는 일 섭섭햐오나, 이런 스정은 오히려 들재 올쇼이다.²⁷

이렇게 귀하게 입양한 양자 상무가 추사를 상면하러 제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극구 만류한다. “부즈간 잇썸가지 못 보오나 인정이 텅 어럽스오나 오히려 들재의 일” 이라고 하고 있다.

아무리 부자간의 의리가 중하다 하지만 조상의 중한 것에 비하면 하잘 것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생겨 혹 후사가 끊기는 일이라도 없을까 추사의 염려가 대단하다.

27.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97.

아히는 두고 볼수록 사름 되오미 가장 괴특흔온가 보오니 일문의 다형흔 읍고, 게셔가 만늬의 효양을 바드랴 그러흔온가 이리 축슈흔 오며, 부자간 잇썸가지 못보오니 인정이 덩 어렵스오나 오히려 돌재의 일이오며, 제가 와서 보랴 한다 흐오니 정니의 고히치 아니 흐오나 녀을 엇지 경경이 올라 보옵. 즉금 우리가 빅슈지년의 겨요 저을 어더 노코 천금만금가치 어로고 고이논딤 저을 엇지 여괴 드려보너며 엇지 드리오개 보옵게습. 제흔몸이 썸 중난헝기 우리 두 사름만 가지고 흐을 즈식이올잇가 흐읍.²⁸

추사는 입양한 아들 상무의 각정식(各鼎食)을 만류한다. 각정식이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식사는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선비의 법도에 어긋난

다고 본 것이다. 아들 부부가 부모와 따로 기거하게 하기 위해 방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나, 각정식 만큼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동의 편지의 늬이 내외을 짜로 내어 각명식을 흐자흐야스오나, 방스 변통흐 읍논딤 짜로 내기는 못홀 일리 업스나 아직 각명식은 부질업스을 듯흐오니, 엇지흐야 이리 괴별흔 말습이온지 므슨 괴미 조짐을 보고 그리 흐온 일이압. 의스가 빅출흐읍. 더고나 그러쇼록 그쳐로 버릇홀 길 업스니 방스는 음기되 각명은 아직 부질 업습²⁹

28.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98.

29.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305.

며느리의 행동거지에 대해 물으면서, 그 모든 것이 가르치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는 편지도 있다. 물론 운도 작용하기는 하나 사람의 힘을 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가르치기에 달려 있다는 추사의 교육적 신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며느리는 그스이 다려 와스온 듯흐오니 집모양 조금 일위 의뢰가 췌히 되옵는가 이리 축슈흐을 쑤이며, 범빅을 보오니 과연 엇더흐읍. 도모지 인도흐야 가르치기의 잇스오니 거셔 혼즈 츄슈러 가시는 일 오작 심녘이 쓰이읍. 도모지 문운이련이와 인녘을 엇지 아니 드리 올가 보옵³⁰

그런가하면 부인에게 적소의 사정과 정리되지 않은 심사를 전하고 있다. 적거지가 그런대로 살기에 괜찮았던 모양이며 자신의 처지에 과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초일일 대정비쇼의 오오니 집은 넉넉히 용신히을 만흔 덕을 어더 혼간방의 마로 잇고 집이 정흐야 별노 도빅도 홀 것 업시 드러스오니 오히려 과흐온 듯흐읍. 먹음시는 아직은 가지고 온 반찬이 잇스오니 엇지 견덕여 가올거시오, 칭복이 쇼산이오니 글노 췌 견덕듯흐읍. 쇠고기는 절귀흐오나 혹 가다가 어더 먹을 도리도 잇습는가 빗

30. 金一 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300.

읍. 아직은 두서홀 정치 못호오니 엇더호 줄 모르개습.³¹

그렇지만 추사는 권문세가에서 태어나 넉넉한 생활을 했던 습관이 여전하다. 부인에게 음식과 의복 등을 부쳐 달라는 편지 내용이 많다는 점은 그런 단면을 보여준다.

제주에 유배된 이듬해인 현종7년(1841)에 보낸 편지에는 부인이 보낸 반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음식을 보낼 때에 주의할 것을 세심하게 적고 있다.

이번의 보내오신 촌물은 여슈이 와습. 민석어의 약간 두상잇스오나 못먹개 되지 아니호와, 병구의 조금 개위가 되오며 어란도 성히 와서 췌히 입맛시 붓치오니 다형형읍. 이번의 온 진상이 집의 것시읍. 종시 쇼곰 맛시 과호야 쓴 맛이 나고 단맛시 업스오니, 그전은 장이면 장으로 만근 것시 다 그러호야 먹을 길이 어렵스오니, 셔울도 그 말 호야 거이와 쇼곰 단맛 잇는 지령을 살지라도 쇼곰 어더 보내개 호읍.³²

반찬투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추사는 이미 자신의 생활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비치고 있다. 편지 내용 속에 ‘짐척’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편지에는 비슷한 표현으로 ‘침채’라는 말도 나온다.

31.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00.

32.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95.

약식 인절미가 맛갑습.. 슈이 와도 성이 오기 어려온디 일곱 달 만 의도 오고 쉬어야 두어 달 만의 오습난 거시엇지 성히 올가 보습. 서울서 보낸 침채는 원악 염을 과히 흔거시라 변미는 호야시나 그러도 침채의 주린 입이라 견디여 먹어습.³³

김치 또는 침채는 어떤 음식일까? ‘소금을 많이 친 것이라’는 구절로 반찬임을 알 수 있고 ‘침채에 주린 입이라’는 구절로 늘 먹는 일상 음식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침채. 한자로 쓰면 ‘침채(浸菜)’이다. 즉 채소를 절였다는 뜻이 되는데, 지금의 ‘김치’이다.

우리나라의 김치 역사는 길지만 오늘날 주로 먹는 배추김치의 역사는 짧다. 19세기 중반에야 통배추에 마늘과 고추로 양념한 배추김치가 본격 등장했던 것이다. ‘침채’는 이후 ‘김채’로 변하고 그것은 다시 ‘김치’로 되었다가 ‘김치’라는 음으로 굳어졌다.

당시 배추김치를 먹는다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배추김치는 왕족과 부호들만 먹는 고가의 침단식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추사가 제주도에서 먹던 침채는 왕실김치의 일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민석어의 약간 두상잇스오나 못먹개 되지 아니호와”라는 편지 구절에서 보이는 민석어는 추사가 매우 좋아 했던 생선으로 보인다. 추사가 해배되어 제주도를 떠날 때 짐을 꾸리고 4기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맨 나중 물목 끝에는 “민석어 봉지 하나”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예산

33. 金一棍,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91.

에서 온 것이기에” 라고 적혀있다.

추사는 부인이 서울에서 보내온 반찬이 자신의 분에 넘침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보내온 반찬들이 그가 질병에 시달려 보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유배지의 생활에서는 과하다는 느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생활에 점차 추사가 적응하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의복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잘 나타난다.

빅편의 글월은 보옵고 보너오신 찬뉴들은 슈대로 즈시 밧다 기별
흐신티로 먹스오니, 셔울 맛시라 비위가 열니오나 이러호게 호야다
가 니밧긔셔 구복을 위호야 호옵는 일이 도로혀 어분의 과호옵.³⁴

명주옷은 보내지 말고 무명옷을 보내라는 사연을 통해서 추사의 생활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주옷을 입는다는 것은 유배인으로서의 어울리지 않아 내내 마음에 걸리다가, 무명옷을 입으니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한다.

그가 유배 생활 1년여 사이에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생활환경에 적응하려는 추사가 쉬 이해된다.

바지는 무명것 고쳐 보내고 명지바지는 보내지 마옵. 여긔 투쥬바
지호나 잇는 것손 죠곰 독겍기 입지 아니호고 아직 두어습. 두루마

34. 金一 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97.

기나 둘다 고쳐 보내옵. 무연 두루막이가 허롭지 아니호오니 상량호
야 호옵.³⁵

추사는 순조6년(1806), 21세에 한산이씨의 상을 당하여 23세에 부인
예안이씨와 재혼을 했다. 그 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다. 발굴된
34통의 한글편지 중 32통이 예안이씨에게 보낸 것이다. 추사의 부인에
대한 애정은 제주에서 보낸 편지에 한층 뚜렷하다.

유배된 이듬해, 56세 때 쓴 것으로 부인의 병에 대한 측량할 길 없는
염려를 보이고 있다. 나왔다는 소식을 인편으로 들었으나 그것을 믿지
못하여 거듭 확인하려는 추사의 마음이 애처롭다.

거셔도 년호여 관겨치 아니 호오시옵. 나왔도다 호여 겨오시나 나
으실 이가 잇습. 진정 나오시면 원외의셔 믿음에 위로되오량마는 그
러홀 이가 업스올 듯호오이다.³⁶

유배되어 3년 되는 해에 보낸 것으로 부인에 대한 염려, 자애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 있다. 부인 역시 노경이라 한번 병을 앓게 되면 꽤유될
길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게 호 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 이천리외의
잇는 마음을 싱각호오셔 십분 신섭호” 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렇듯 노경에 이른 추사의 부인에 대한 자애가 어떠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35. 金一椽,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93.

36. 金一椽,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92.

그대 병을 지내오시고 요스이야 저기 쇼성이 되오신가 보오나 여슈가 종시 췌복지 못호오신가 보오니, 게셔도 쇠경이라 혼번 병 드오시면 본닉 적상적픽호오신 근녁의 오작호오시라 이러 동동 녀넌 못내 노흘 걸업습 점점 춘화호흡고 인편 후 쏘 달이나 너머 스오니 범절 엇더호오시옵. 부디 게 혼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 이전 리외의 잇는 마음을 습각호오셔 심분 신섭호야 가오시기 바라오며(하략).³⁷

애지중지 하던 부인 예안이씨는 현종8년(1842) 11월 13일 죽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추사는 부인의 사후 하루 뒤, 사후 5일 뒤에도 편지를 보낸다. 두 편지 모두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부인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져 있다.

부인의 복용하는 약, 음식과 잠자리 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위의 편지가 애절한 것은 모두 부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부인의 생일이 가까워 오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광경을 멀리서 생각하는 내용 때문이다.

추사는 이미 부인의 죽음에 대한 예감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2천리의 먼 곳에서 돌아가는 사람을 붙잡고 또 한 통의 편지를 보낸다.

경득 회편을 어너 썬 드리갓습. 그 후로는 선편이 거리가 막히여 쇼식을 오락 못 듯즈오니 어너듯 동지가 지격호오넉 미령호오심 엇더호오시옵. 그 증이 돌연 이각이 어렵스오나 이 동안 가감동정이 엇

37.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298.

더호오시고, 별서 석 달이 너머스오니 원귀 범절이 오작 귀호여 겨오
 시랴. 이리 외오서 동동 녀녀 엇더타 호올 길이 업스오며, 침식법칙
 은 엇더호읍. 이 동안은 무슴 약을 즈시며 아조 위석호야 지내읍. 간
 절흔 심녀 갈스록 지정치 못호개습.(중략) 인편이 하 업습기 주성이
 나 무슴 인편 이실지 대강 두어즈 안부만 이리 브치오니 췌히 평복이
 되신 쇼식 이리 날로 기들이읍.(중략) 임인 지원 십스일 상장
 싱신이 지격호오시니 아히들 호고 한가지로 지내오실 일 요요히셔
 싱각췌이읍.³⁸

5. 유배지 밖으로의 외출

추사의 제자 강위는 “선생은 10년을 머물면서 한 번도 담장을 나가
 지 못했다.(先生居停十年未嘗一出檐外)”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감시 책임을 맡은 관내 수령의 재량으로 추사는 대정을 떠나 제주목까
 지 기행을 할 수 있었다. 「우재의 유허비」라는 시를 통해 추사가 직접
 현재의 제주시 칠성동에 위치해 있는 우암 송시열의 적거지를 직접 찾
 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재의 유허비」

길 가는 사람들도 단비 앞에 말 내리니

김환심의 집에서 옛 자취를 전해오네

38.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pp.301~302.

굴림에 잔 올려 심사를 밝혔으니

생강 심던 그 해에는 지금도 눈물짓네.³⁹

당시에는 그 적거지에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가 세워져 있었으며 그것을 추사가 직접 보았던 것이다.

송시열이 사약을 먹고 죽은 후 눈을 감겨 주었다는 권상하의 증손자인 권진응이 영조의 탕평책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영조47년(1771) 제주도에 유배되어 창천리 적거지를 창주정사(倉洲精舍)라 이름 부쳐 지방의 유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이듬해 유배가 풀려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현재의 제주시 칠성동에 있는 송시열의 유배터를 방문한 후 제주도 유생들을 불러 모아 기념비를 세울 것을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인 것이다. 우암 송시열의 적거지는 제주 성안 산지골의 당시 아전이었던 김환심의 집이었지만 경종4년(1724) 불에 타서 터만 남아 있고 거기에 영조48년(1772) 유허비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유홍준은 『완당평전』에서 추사가 오현단을 찾아갔다고 했지만⁴⁰ 그것은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가 현재 제주시 오현단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말한 것이다.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는 제주 성안 산지골에서 1935년에 제주향교로 이건되었다가 제주중학교를 정비할 때 다시 오현단 성내로 옮겨 온 것이다.

39. 『阮堂先生全集』, 卷十, 詩, 尤齋遺墟碑, “行人下馬短碑前 金煥心家舊蹟傳 一酌橘林明志事 至今彈淚種薑年”

40. 유홍준, 『완당평전 2』, 학고재, 2002, p.475.

그런데 정후수 교수는 김환심이 추사가 처음 귀양가서 살던 굴림서원 집터의 주인이라고 했는데⁴¹ 이것도 잘못된 지적이다. 굴림서원은 제주 목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추사가 처음 귀양 가서 살던 곳은 대정현 송계순의 집이었다.

그리고 추사가 오현단을 찾아갔다는 유흥준의 또 다른 잘못은 당시에는 오현단이 없었고 굴림서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1871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굴림서원이 헐린 후, 1892년 제주 유림들의 건의에 의해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던 오현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단이 오현단인 것이다. 그러니까 추사가 제주도 유배생활을 할 당시는 여전히 굴림서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위리안치는 유배인의 행동범위를 실제 가시울타리 안으로만 제한하는 형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조치로서 그렇게 엄격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다. 유배인의 감시 책임은 관내의 수령이었던 까닭에 수령의 성격이나 재량권 활용에 따라 대개는 형식에 그치는 수가 많았다. 추사는 이런 이유로 굴림서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굴림서원은 선조11년(1578)에 조인후 판관이 중종16년에 기묘사화로 유배와서 죽임을 당한 김정익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묘를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⁴² 성혼의 문인으로 당대의 명문장가인 임제가 절도사인 아버지를 뵈고자 내도하였다가 조인후의 부탁으로 기(記)를 썼고⁴³ 효종 10년(1659)에 이회 목사가 제주유림 김진용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수당

41. 정후수, 『추사김정희논고』, 한성대학교출판부, 2010, p.133. 각주120번 참조

42. 金錫翼, 『耽羅紀年』, “宣祖 十一年 春 判官趙仁後 建沖庵廟于嘉樂川東”

43. 林悌, 『南溟小乘』, “金先生祠宇成 趙侯屬余記之, 李元鎮 『耽羅志』 詞廟條”

을 건립하자⁴⁴ 현종6년(1665)에 최진남 판관이 김정의 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어 이를 사(祠)로 하고 장수당을 재(齋)로 하여 굴림서원이라 현판을 달았다.⁴⁵

현종10년(1669)에는 김상헌과 정운을 배향하여 숙종1년(1675) 3신의 서원으로 사액을 요청해 보지만 비변사에 의해 거절되었다.⁴⁶ 숙종8년(1682)에 가서야 송인수를 배향하면서 4신 서원으로 사액되어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⁴⁷ 숙종21년(1695)에는 송시열을 배향함으로써 오현 배향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⁴⁸

추사의 행동 범위가 대정의 가시울타리로만 제한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또 다른 시에서도 엿보인다.

「급고천 물을 떠다 차를 대린다」
사나운 용의 턱 아래 박힌 여의주는
“송풍간수도”에서 따온 것 일세
성 안팎의 샘물 맛을 시험 삼아 가려보니
제주사람들도 또한 차를 폼평할 수 있을까⁴⁹

44. 金錫翼, 『耽羅紀年』, “牧使李建藏修堂 是因金晉鎔議 遂建學堂于南城內 高得宗舊基 扁藏修 仍興學事”.

45. 金錫翼, 『耽羅紀年』, “顯宗 六年 判官崔鎮南 移建沖庵廟于藏修堂南 揭額橘林書院”.

46. 『肅宗實錄』, 元年, 九月(庚戌), “三臣書院亦宜宣額 下備局 備局回啓 言賜額事 重 有難輕議”

47. 金錫翼, 『耽羅紀年』, “肅宗 八年…以宋麟壽 金尙憲 鄭蘊 從享于沖庵廟 仍宣 額曰橘林書院”

48. 金錫翼, 『耽羅紀年』, “二十一年 以文正公宋時烈 從享于橘林書院 宋時烈 字英甫 號尤菴 恩津人 己巳春滄謫本州 踰月被逮 受後命于中道 官左議政從祀文廟”

49. 『阮堂先生全集』, 卷十, 詩, 汲古泉試茶, “甯龍額下嵌明珠 拈取松風澗水圖 泉味試分城內外 乙那亦得品茶無”

급고천은 제주목의 산지천 가에 있는 우물로서 조선시대 제주 성안 사람들의 생명원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산지천 샘터로는 급고천(汲古泉), 감액천(甘液泉), 산저천(山低泉)이 있었다. 따라서 추사가 이런 시를 남겼다는 것은 대정에서 현재 제주시 건입동까지 왔었다는 증거가 된다. 아마도 제주 성안 산지골에 들려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를 보고 「송시열의 유허비 앞에서 읊는다」라는 시를 쓰던 시기와 같은 때가 아니었는지 짐작된다.

“성 안팎의 샘물 맛을 시험 삼아 가려보니, 제주사람들도 또한 차를 품평할 수 있을까”라는 구절을 보면 추사가 제주도의 샘물 맛을 가려가며 차를 시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의 선사가 쓴 「다신전(茶神傳)」에도 언급되지만 『다경』에 이르기를 “산(山)물이 상등이고, 강물은 하등이며, 우물은 최하등이다”라고 했듯이 추사 역시 물에 대해 일가견이 있었다. 이 시를 통해 한편으로 추사가 제주도의 다도문화에 끼친 영향도 알 수 있다.

우물 얘기가 나오면 유명한 것이 종종 때 충암 김정의 일화다. 그가 기묘사회를 당하여 제주에 위리안치 되었을 적에 자신의 적소 곁에다 우물 하나를 파서 얻었는데, 물이 매우 맑고 시원했으므로, 후인들이 그를 사모하여 이 우물을 ‘판서정’이라 이름 하였다는 것이다. 추사도 친구인 권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정의 나쁜 물 사정을 전하며 판서정을 언급했다.

수천(水泉)은 과연 좋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름철에는 빗물, 겨울철에는 눈으로 밥을 짓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금년 여름은 특히 가물지 않았는데도 우물이 멀리 5리 밖에 있으므로 물을 길어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일 충암(冲庵)의 판서정(判書井)의 고사와 같이 우물을 파서 얻을 수 있다면 또한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이 위리 밑에 어디서 샘을 엿볼 수 있겠습니까.⁵⁰

따라서 추사가 이런 시를 남겼다는 것은 적어도 대정에서 현재 제주 시 건입동까지 왔었다는 증거가 된다. 급고천과 굴림서원은 가까운 거리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두 장소를 같은 시기에 들리지 않았는지 추측을 해보게 된다.

추사는 한라산도 찾았다. 겨울 한라산에 올라 언 먹을 입김으로 녹이며 글씨를 쓰는데 남들은 먹이 얼어붙어 글씨를 쓸 수 없었지만 추사만은 신체를 빛내는 글씨를 썼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한라산을 찾았던 대표적인 유배인으로 최익현이 있고 그는 「유한라산기」라는 기행문도 남겼다. 추사는 기행문을 남기진 않았지만 한라산에서 감로수를 만난 감회를 친구에게 전했다. 추사가 말하는 감로수는 고로쇠나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에는 감로수가 있어 나무의 굵기는 겨우 한 뼘 혹은 두세 뼘쯤 되는데 밑동을 자르면 나무의 즙이 폭포처럼 솟아 나와서 한 나무에서 큰 병으로 가득히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은 마치 유천과 같고 단맛은 상품의 석밀과 같아 맑고 차가우면서도 향기가 있어 다른 꿀의 달기가 모두 이만 못하니 참으로 기이한 산품이라 하겠습

50. 『阮堂先生全集』, 卷三, 與權彝齋, 八, “泉果不佳夏雨冬雪之炊亦或有之今夏特不早耳并爲五里之遠汲運極難若鑿而得之如冲庵判書井故事亦幸甚顧此籀底何處覘泉耶”

니다.⁵¹

Ⅲ 결론

추사의 제주도에서의 일상생활은 비교적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추사는 제주도에서 교학활동과 예술 활동 그리고 독서활동만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생생활은 일반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건강관리에 힘을 쏟았고 이를 위해 인삼을 장복했다는 것과 다도생활을 즐겼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위리안치의 생활이라는 것이 윤패된 채 아무것도 못하는 줄로 알지만 추사를 보건대 지금의 제주시까지도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한라산도 올라갔음을 볼 때 일상생활이 비교적 자유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의 일생생활만을 두고 보어도 추사는 간혀있으면서도 간혀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문헌

備邊司謄錄

小學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濟州教育通史, 濟州道教育研究院, 1974.

51. 『阮堂先生全集』, 卷三, 與權彝齋, 其十, “此中有甘露樹 樹身大厪一握 或二三握 截其本則樹汁 湧如瀑泉 一本可得水一大瓶 水如乳泉 味甘如石蜜之上品 清冽有香 他蜜之詬 皆不如也 儻奇品異產矣 仙家之瓊漿玉液 恐不多於是 樹在深山 或有遇之而不多見 此中人亦不知也 年前有一行脚 如道人者 渡海而來 入出渴甚 取其樹 截而飲之 其時樵夫一人 旁見之 能道其事 今從樵夫得之 恐其傳播 而爲此島大患 故亦秘而不發”

耽羅文化 6, 7, 8, 9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漢署
金奉玉, 濟州通史, 제주문화, 1978.
金錫翼, 耽羅紀年
金宗業, 耽羅文化社, 조약들, 1987.
金正喜, 阮堂先生集
金宗直, 估華齋集
金一根, 諺簡의 研究, 建國大學校 出版部, 1991.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李基東, 崔一凡, 共譯, 驪江出版社, 1987.
吳文福, 瀛州風雅, 韓一印刷社, 1988.
李丙燾, 韓國儒學史, 亞世亞文化社, 1987.
李栗谷, 聖學輯要
李源祚, 凝高集
林悌, 南溟小乘
정후수, 추사김정희논고, 한성대학교출판부, 2010.
韓國近代思想叢書, 姜瑋全集, 亞世亞文化社, 1978.
韓退之, 師說
黃度淵, 方藥合編
許鍊, 小癡實錄
藤塚郷, 清朝文化東傳의 研究, 日本古書刊行會, 1946.

